

연령과 체형에 따른 성인 남성의 기성복 맞춤새 정도 선호도

The Fit Preference for Ready to Wear Clothings by the Age and Obesity Level of Adult Men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연구교수 석혜정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김인숙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hee Univ.
Research Professor : Seok, Hye Ju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hee Univ.
Professor : Kim, In Sook

◀ 목 차 ▶

- | | |
|------------|-------------|
| I. 연구 목적 | IV.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 결과 |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it preference for ready-to-wear clothes(jackets and slacks) of adult men and to determine the respective differences by the age range and obesity level. The study method was a questionnaire survey with 465 male subjects aged from 20 to 59 years old.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fit preference tendency, physical measurements, age, and occupatio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Regarding the fit preferred for each part of jackets and slacks, among ready-to-wears, the 'thing with some extra width' in every part was most favored, followed by the 'thing fitting perfectly'. 2.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fit preference tendency by the age of adult men. The fit preference tendency was higher among those in their 20's than among those of the other age ranges. 3. Differences were also found in the fit preference tendency by the obesity level of adult men. The fit preference tendency was higher in the order of the emaciation, normalcy, and obesity types. 4. The fit preference tendency was more affected by age than by obesity level. Clothing companies should consider ease to offer the proper clothing desired by consumers.

주제어(Key Words): 맞춤새 선호도(Fit preference), 기성복(Ready-to-wear), 연령(Age), 체형(Physical constitution)

1. 연구 목적

2004년도 의류 소비 실태 조사(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4)에 의하면 2004년 전체 의류 시장 중 남성복 시장 규모는 3조 6천억원이며, 그중 정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22.4%로 남성복 아이템 중 가장 높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캐주얼 차림의 “자유복 근무제”의 유행이 그 정점을 지나 이제 다시 정장 차림이 2002년 66.8%, 2003년 68.2%, 2004년 70.4%로 증가하고 있어 정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매일경제, 2004. 12. 6).

한편, 소비 생활의 개성화, 다양화는 소비 성향을 변화시켜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성 소비자들은 “메트로 섹슈얼”이라는 트렌드와 함께 외모와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기성복은 유행의 흐름이 점점 빨라짐에 따라 디자인이 더욱 다양화, 전문화되어 소비자들의 개인적 취향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의복의 맞춤새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별, 연령, 체형, 선호하는 패션 경향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맞춤새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현실적 제한을 받고 있다.

남성 정장은 체형을 잘 드러내는 특성 때문에 디자인, 색상, 스타일 등 다른 요소보다 맞춤새를 가장 중요시하는 아이템이라는 연구 결과(Hogge, Baer & Kang-Park, 1988)와 우리나라 남성이 정장을 구입할 때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은 내구성, 칼라, 디자인 등의 요인 보다 맞춤새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삼성패션연구소, 2000)를 감안할 때 남성 정장의 의복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적절한 맞춤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맞춤새는 의복의 기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신체의 형태를 얼마나 긴장된 혹은 이완된 모습으로 표현해주는지를 결정하게 되므로 의복의 심미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남성 기성복 맞춤새에 관한 연구는 치수의 적합성(김유미, 1996; 김희영, 1998), 신체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이선희, 서미아, 1997; 안성원, 2001)로 나누어 연구되었으나 맞춤새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최근의 소수 연구에 머물고 있다.

강여선(2004)의 연구에서는 25-59세 남성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재킷 맞춤새에 대해 “너무 딱 맞는”에서 “매우 여유 있는”의 5단계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한 결과 전체 품(47.9%)의 여유분은 “약간 여유 있는”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어깨너비(45.6%), 허리둘레(39.4%), 엉덩이둘레(52.5%), 위팔둘레(62.3%), 재킷길이(67.6%), 소매길이(73.4%) 항목은 “보통”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슴둘레(40.6%) 부위는 “보통”과 “약간 여유 있는”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넉넉한 여유

를 선호하였다.

여성을 대상으로 여유분 선호 행동을 연구한 오설영(2000)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체형별, 브랜드의 타겟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허리가 가는 체형이 다른 체형(일자 체형, 골반이 발달한 체형, 어깨가 발달한 체형)에 비해 꼭 맞게 입는 것을 선호하였고, 브랜드의 타겟 연령이 높을수록 여유가 많은 것을 선호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 여대생 의복 맞춤새 선호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아이템(재킷, 스커트, 바지)의 부위별 선호 맞춤새를 조사한 손희순, 임순, 김효숙, 손희정, 김영숙, 장희정, 박호선의 연구(2000)에서는 중국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에 비해 신체 밀착형을 선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맞춤새의 선호도는 민족별, 체형별, 브랜드의 타겟 연령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여선의 연구(2004)는 재킷 아이템만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며 연령과 체형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고, 손희순 외 6인의 연구(2000)는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오설영의 연구(2000)에서는 응답자의 실제 체형과 연령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 아닌 본인이 생각하는 체형과 본인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타겟 연령으로 집단을 나누어 맞춤새 선호 경향의 차이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의 연령과 체형에 따라 선호하는 맞춤새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성인 남성의 기성복 정장(재킷, 바지)의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를 조사하고 연령별, 체형별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성인 남성의 기성복 정장(재킷, 바지)의 각 부위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를 알아본다.
- 연구문제 2. 성인 남성의 정장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의 연령별/체형별 차이를 알아본다.
- 연구문제 3. 연령과 체형이 성인 남성의 정장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성인 남성의 기성복 맞춤새 선호 경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20세에서부터 59세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5년 7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울과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00부를 회수하여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5부를 제외하고 465부를 통계처리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고, 직업은 사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령	빈도(명)	비율(%)	직업	빈도(명)	비율(%)
20-29세	149	32.04	생산직	15	3.23
30-39세	129	27.74	전문직	107	23.01
40-49세	98	21.08	판매직	23	4.95
50-59세	89	19.14	사무직	152	32.69
			학생	108	23.23
			기타	60	12.90
Total	465	100.00	Total	465	100.00

<표 2> 의류 아이템별 맞춤새 설문 부위

아이템	재킷	바지
설문 부위	어깨너비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영덩이둘레 소매통	허리둘레 배둘레 영덩이둘레 허벅지둘레 바지부리통 밑위길이

2. 측정 도구

설문지는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 12문항, 신체 치수 2 문항, 연령, 직업을 묻는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음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 문항은 선행 연구(손희순 외 6인, 2000; 오설영, 2000; 석혜정, 김인숙, 2003)를 토대로 하여, 정장 재킷과 바지의 부위별 “어느 정도 맞춤새(여유분)를 원하십니까?”의 질문에 4단계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각 아이템별 부위는 <표 2>와 같다. 각 아이템의 부위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고, 의복 구매시 중요하게 여기는 부위를 선정하였다. 바지의 ‘밑위길이’는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도식화로 부위를 나타내 주었다.

척도는 “몸에 꼭 맞았으면 좋겠다”, “여유가 약간 있었으면 좋겠다”, “여유가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 “여유가 아주 많았으면 좋겠다”의 4단계 중 가장 원하는 맞춤새에 표시하게 하였다.

맞음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의 Cronbach's alpha coefficient는 0.85로 나타났다.

신체 치수를 묻는 문항은 키와 몸무게를 스스로 적게 하였다.

3. 자료의 분석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통계, 교차분석, 일원 분산분석, Duncan-test, t-test,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용어의 정의

1)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맞음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높

다’라는 것은 의복의 여유분이 적어 몸에 꼭 맞는 타이트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반대로 ‘맞음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낮다’라는 것은 의복의 여유분이 많은 느슨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음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는 4점 척도로 처리하였다. “몸에 꼭 맞았으면 좋겠다”를 1점, “여유가 약간 있었으면 좋겠다”를 2점, “여유가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를 3점, “여유가 아주 많았으면 좋겠다”를 4점으로 처리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척도를 비례척도로 간주하여 통계처리하였다.

2) 체형 분류

체형 분류는 신체의 비만도를 나타내는 Rohrer지수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Rohrer지수는 일반인들이 쉽게 알고 있는 키와 몸무게의 신체계측치를 사용하여 비만도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기술식 설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성민정, 김희운, 2001). Rohrer지수의 판정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박우미(1993), 백희영, 남운자, 박재경, 김주연(2000), 성민정, 김희운(2001), 주재은, 정찬진, 정명선(2001)이 제시한 판정 기준을 사용하여 Rohrer 지수가 1.2미만은 수적, 1.2이상 1.5미만은 정상, 1.5이상은 비만으로 구분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성인 남성의 기성복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

전체 응답자의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의 빈도를 <표 3>에 나타냈다. 모든 부위에서 ‘여유가 약간 있었으면 좋겠다’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몸에 꼭 맞았으면 좋겠다’가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았다. 즉 성인 남성들은 여유가 많은 옷을 선호하지 않고, 몸에 꼭 맞거나, 약간의 여유가 있는 옷을 선호하였다.

각 아이템의 부위별 맞춤새 선호도를 비례척도로 간주해 평균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각 아이템의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의 평균은 1.78에서 2.03의 범위에 분포해

<표 3> 전 응답자의 부위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 빈도

단위 : 명(%)

아이템별 부위		맞음새의 정도	몸에 꼭 맞았으면 좋겠다.	여유가 약간 있었으면 좋겠다.	여유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여유가 아주 많았으면 좋겠다.
재킷 (n = 465)	어깨너비		128(27.53)	316(67.96)	18(3.87)	3(0.65)
	가슴둘레		100(21.51)	332(71.40)	28(6.02)	5(1.08)
	허리둘레		122(26.24)	304(65.38)	36(7.74)	3(0.65)
	배둘레		77(16.56)	337(72.47)	48(10.32)	3(0.65)
	영덩이둘레		60(12.90)	357(76.77)	45(9.68)	3(0.65)
	소매통		94(20.22)	330(70.97)	37(7.96)	4(0.86)
바지 (n = 465)	허리둘레		127(27.31)	313(67.31)	25(5.38)	
	배둘레		69(14.84)	356(76.56)	40(8.60)	
	영덩이둘레		55(11.83)	368(79.14)	41(8.82)	1(0.22)
	허벅지둘레		45(9.68)	364(78.28)	55(11.83)	1(0.22)
	바지부리통		71(15.27)	339(72.90)	54(11.61)	1(0.22)
	밑위길이		73(15.70)	334(71.83)	56(12.04)	2(0.43)

<표 4> 각 아이템의 부위별 맞춤새 선호도

아이템	부위	평균	아이템	부위	평균
재킷	어깨너비	1.78	바지	허리둘레	1.78
	가슴둘레	1.87		배둘레	1.94
	허리둘레	1.83		영덩이둘레	1.97
	배둘레	1.95		허벅지둘레	2.03
	영덩이둘레	1.98		바지부리통	1.97
	소매통	1.89		밑위길이	1.97

몸에 꼭 맞거나, 여유가 약간 있는 옷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유분이 적은 맞춤새를 선호하는 부위는 재킷의 어깨너비(1.78), 바지의 허리둘레(1.78), 재킷의 허리둘레(1.83)였고, 비교적 여유분이 허용되는 부위는 바지의 허벅지둘레(2.03), 바지의 영덩이둘레(1.97), 바지의 바지부리통(1.97), 바지의 밑위길이(1.97)로 나타났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석혜정, 김인숙, 2003)에서는 각 아이템의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의 평균은 1.66에서 2.09의 범위에 분포하였고, 여유분이 적은 맞춤새를 선호

하는 부위는 바지의 허리둘레(1.66), 재킷의 어깨너비(1.68), 재킷의 허리둘레(1.81)였고, 비교적 여유분이 많은 맞춤새를 선호하는 부위는 재킷의 배둘레(2.01), 바지의 허벅지둘레(1.99), 바지의 바지부리통(1.99), 바지의 영덩이둘레(1.95)로 나타나, 남성, 여성 모두 패션의 트렌드인 여유가 없이 꼭 맞는 옷을 선호하고, 각 아이템의 부위별 맞춤새의 선호도가 다른 부위에 비해 높고 낮은 부위가 같음을 알 수 있다.

2. 연령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 차이

맞음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재킷의 어깨너비,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영덩이둘레, 바지의 배둘레, 바지부리통 부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표 5).

전체적으로 50대가 가장 많은 여유분을, 20대가 가장 적은 여유분을 선호하였다.

부위별로는 재킷의 어깨너비,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영덩이둘레는 20대가, 소매통은 3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맞

<표 5> 연령대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아이템별 부위		연령대	20대 (149명)	30대 (129명)	40대 (98명)	50대 (89명)	F-value
재킷	어깨너비		1.61 C	1.77 B	1.88 AB	1.96 A	9.63***
	가슴둘레		1.64 C	1.89 B	2.01 AB	2.04 A	14.83***
	허리둘레		1.70 C	1.82 BC	1.86 B	2.02 A	6.11***
	배둘레		1.81 C	1.92 BC	1.97 B	2.20 A	10.43***
	영덩이둘레		1.86 C	1.95 BC	2.06 B	2.15 A	7.49***
	소매통		1.88 AB	1.81 B	1.92 AB	2.02 A	2.82*
바지	허리둘레		1.76	1.77	1.76	1.87	0.95
	배둘레		1.87 B	1.91 B	1.96 AB	2.07 A	3.49*
	영덩이둘레		1.98	1.91	1.99	2.03	1.24
	허벅지둘레		2.01	2.00	1.99	2.12	1.63
	바지부리통		2.06 A	1.84 B	1.92 AB	2.04 A	4.93**
	밑위길이		1.95	1.92	2.01	2.03	0.96

* : p ≤ 0.05 ** : p ≤ 0.01 *** : p ≤ 0.001, A > B > C

음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높았다. 어깨너비와 가슴둘레는 20대와 30대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20대가 30보다 더 적은 여유분을 원하였으나 40대는 30대와 50대의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를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는 40대와 50대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반면 30대는 20대와 40대의 선호 경향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50대는 허리, 배 및 엉덩이둘레에서 40대보다 확실히 더 많은 여유분을 원하지만 30대는 이 부위에서 때로는 20대와 유사한, 때로는 40대와 유사한 선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30대의 체형변화에 개인차가 많거나 혹은 30대의 여유분 선호 취향의 개인차가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소매통은 50대와 30대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반면 20대와 40대가 50대와 30대의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를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킷의 다른 부위와는 다른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를 보였다.

바지의 배둘레는 20대와 30대가, 바지부리통은 30대가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높았다. 바지의 배둘레는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낮아 여유가 많은 것을 선호하였고, 40대는 50대와 20, 30대의 맞춤새 정도에 따른 선호를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부리통은 20대와 50대가 같은 선호 경향을 보이고 맞춤새 선호 경향이 가장 낮았고, 40대가 20대, 50대와 30대의 맞춤새 선호 경향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부위에서는 뚜렷한 선호 경향의 차이를 보였던 20대와 50대가 같은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를 보였고, 특히 모든 부위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맞춤새 선호 경향이 가장 높아 여유가 적은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20대가 바지

부리통에서 가장 맞춤새 선호도가 낮아 여유가 많은 것을 선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요즘 남성 정장의 유행이 허리가 잘룩하고 몸에 꼭 맞는 피트형 재킷과 통이 넓은 일자형 통바지 형태의 복고 스타일로(연합뉴스, 2005) 20대는 이와 같은 유행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상의는 꼭 맞지만 하의의 바지통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것을 선호하고 맞춤새에 있어서도 상의는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높지만, 바지부리통은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석혜정, 김인숙, 2003) 모든 부위에서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았고, 30, 40대가 50대에 비해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과 같았다. 그러나 바지에서 여성은 바지부리통 부위만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있었던 것에 비해 남성은 대부분의 부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배둘레와 바지부리통에서만 차이가 있었던 점이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3. 체형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

각 체형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한 결과를 <표 6>에 나타냈다. 재킷은 모든 부위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으나, 바지는 모든 부위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비만형이 가장 많은 여유분을 수척형, 정상형이 적은 여유분을 선호하였다.

부위별로 재킷의 어깨너비, 가슴둘레, 소매통은 수척형과 정상형이 비만형에 비해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높아 더 적은 여유분을 선호하였고, 허리둘레, 배둘레는 수척형, 정상형, 비만형 순으로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높았다. 엉덩이둘레는 수척형과 비만형이 뚜렷한 차이가 있는 반

<표 6> 체형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아이템별 부위		연령대	수척(57명)	정상(326명)	비만(82명)	F-value
재킷	어깨너비		1.65 B	1.75 B	1.98 A	7.86***
	가슴둘레		1.72 B	1.84 B	2.07 A	8.50***
	허리둘레		1.63 C	1.81 B	2.04 A	9.03***
	배둘레		1.75 C	1.94 B	2.15 A	9.58***
	엉덩이둘레		1.84 B	1.97 AB	2.11 A	5.02**
	소매통		1.91 B	1.84 B	2.09 A	6.45**
바지	허리둘레		1.68	1.78	1.85	1.74
	배둘레		1.84	1.94	2.01	2.13
	엉덩이둘레		1.93	1.98	1.96	0.37
	허벅지둘레		1.96	2.02	2.09	1.14
	바지부리통		2.05	1.94	2.01	1.44
	밑위길이		2.02	1.94	2.06	1.82

* : p ≤ 0.05, ** : p ≤ 0.01, *** : p ≤ 0.001, A > B > C

<표 7> 연령과 체형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 \ 체형	수척	정상	비만	total	$\chi^2 = 59.74^{***}$
20대	38 25.50	101 67.79	10 6.71	149 100.00	
30대	10 7.75	101 78.29	18 13.95	129 100.00	
40대	5 5.10	68 69.39	25 25.51	98 100.00	
50대	4 4.49	56 62.92	29 32.58	89 100.00	
total	57 12.26	326 70.11	82 17.63	465 100.00	

한 셀 안의 숫자는 차례로 - 실제출현빈도, 각 연령대별 백분율, *** : $p \leq 0.001$

<표 8> 20대의 체형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아이템별 부위 \ 체형	수척(38명)	정상(101명)	비만(10명)	F-value	
재킷	허리둘레	1.53 B	1.72 B	2.10 A	4.20*
	배둘레	1.68 B	1.81 B	2.30 A	5.01**
	소매통	1.89 B	1.83 B	2.30 A	3.20*

* : $p \leq 0.05$, ** : $p \leq 0.01$, A > B, 일원분산분석결과 유의성이 인정되는 것만을 표에 실었음.

면 정상형은 수척형과 비만형의 선호 경향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척형은 비만형보다 확실히 적은 여유분을 원하지만 정상형은 수척형과 비만형과 유사한 선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재킷은 체형에 따라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의 차이가 나타났고, 비만형이 가장 낮은 맞춤새 선호 경향이 나타나 가장 많은 여유분을 선호하였고, 수척형 혹은 수척형과 정상형이 동시에 가장 높은 맞춤새 선호 경향을 보인 남성의 결과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석혜정, 김인숙, 2003)의 결과와 같았다.

그러나 바지는 모든 부위에서 차이가 없어, 바지에서도 재킷과 마찬가지로 바지부리통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체형간 차이가 있었고, 특히 수척형, 정상형 비만형 순으로 뚜렷하게 세 집단간 선호 경향 차이가 나타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석혜정, 김인숙, 2003)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4. 연령별 체형 분포

연령과 체형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 의 값이 59.74로 서로간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모든 연령대에서 정상 집단의 분포가 가장 많았지만(20대 67.79%, 30대 78.29%, 40대 69.39%, 50대 62.92%), 20대는 수척 집단(25.50%), 40대(25.51%)와 50대(47.8%)는 비만 집단의 비율이 높아 각 연령대별 특징이 보이는 체형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 맞춤새 선호 경향이 연령과 체형의 연

관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을 배제한 상태에서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5. 각 연령대의 체형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

각 연령대의 체형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test를 한 결과 20대에서만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표 8).

20대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난 부위는 재킷의 허리둘레, 배둘레, 소매통으로 세 부위 모두 수척형과 정상형이 비만형에 비해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아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30대(수척, 정상, 비만), 40대(정상, 비만), 50대(정상, 비만)의 체형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의 차이는 없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20대는 재킷은 수척형과 정상형이 비만형에 비해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지만, 재킷의 경우 30대 이상의 연령대와 바지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체형별 맞춤새 선호 경향의 차이가 없어, 체형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6. 각 체형의 연령대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 차이

1) 수척형의 연령대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 차이

수척형의 연령대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를 표 9)에 나타냈다. 40대와 50대는 수척형에 속하는 응답자가 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표 9> 수척형의 연령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아이템별 부위	연령대	20대	30대	t-value
		(38명)	(10명)	
재킷	영덩이둘레	1.76	2.00	-2.98**

** : $p \leq 0.01$, t-test 결과 유의성이 인정되는 것만을 표에 실었음.

재킷의 영덩이둘레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고, 20대가 30대에 비해 여유분 선호 경향이 높았다.

2) 정상형의 연령대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 차이

정상형의 연령대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한 결과를 <표 10>에 나타냈다. 재킷의 어깨너비, 가슴둘레, 배둘레, 영덩이둘레, 바지의 바지부리통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재킷의 어깨너비, 가슴둘레, 영덩이둘레는 20대가, 배둘레는 20대, 30대, 40대가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높아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하였다. 어깨너비와 가슴둘레는 30, 40, 50대의 차이가 없었으나 배둘레는 50대가 30대와 40대에 비해 여유분이 많은 것을 선호하였다. 영덩이둘레는 40대와 50대가 차이가 없었으나 30대는 20대와 40, 50대의 선호 경향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40대와 50대가 20대에 비해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낮아 더 여유가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바지의 바지부리통은 20대가 맞춤새 선호 경향이 30, 40대에 비해 낮아 여유가 많은 것을 선호하였고, 50대는 20대와 30, 40대의 선호 경향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여 재킷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3) 비만형의 연령대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 차이

비만형의 연령대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test 결과를 <표 11>에 나타냈다. 바지의 배둘레에서 체형간 차이가 나타났다. 30, 40대가 20, 50대에 비해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유가 적은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맞춤새 선호에 대한 연령과 체형과의 관계

연령과 체형이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과 로리지수를 독립 변수로 하고 맞춤새 선호 경향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

연령과 로리지수가 모두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는 재킷의 어깨너비, 재킷의 허리둘레, 재킷의 배둘레, 재킷의 영덩이둘레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연령이 재킷의 어깨너비, 재킷의 배둘레, 재킷의 영덩이둘레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로리지수는 재킷의 허리둘레에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킷의 가슴둘레, 바지의 배둘레의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는 연령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킷의 소매통은 로리지수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로리지수 모두 높을수록 재킷의 어깨너비, 재킷의 허리둘레, 재킷의 배둘레, 재킷의 영덩이둘레의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낮았고, 재킷의 가슴둘레, 바지의 배둘레는 연령이 높을수록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낮았고, 재킷의 소매통은 로리지수가 높을수록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낮았다.

재킷은 모든 부위에서 연령 혹은 체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바지는 배둘레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

<표 10> 정상형의 연령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아이템별 부위	연령대	20대(101명)	30대(101명)	40대(68명)	50대(56명)	F-value
		재킷	어깨너비	1.57 B	1.75 A	
	가슴둘레	1.62 B	1.88 A	1.97 A	2.00 A	9.54***
	배둘레	1.81 B	1.94 B	1.94 B	2.14 A	5.33**
	영덩이둘레	1.88 B	1.94 AB	2.07 A	2.07 A	3.33*
바지	바지부리통	2.08 A	1.84 B	1.85 B	1.98 AB	4.41**

* : $p \leq 0.05$, ** : $p \leq 0.01$, *** : $p \leq 0.001$, A > B,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의성이 인정되는 것만을 표에 실었음.

<표 11> 비만형의 연령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아이템별 부위	연령대	20대(10명)	30대(18명)	40대(25명)	50대(29명)	F-value
		바지	배둘레	2.20 A	1.89 B	

** : $p \leq 0.01$, A > B,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의성이 인정되는 것만을 표에 실었음.

<표 12> 맞춤새 선호도에 대한 연령과 비만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td. Error	Beta	t-value	R ²	F-value
재킷	어깨너비	연령	0.01	0.00	0.20	4.00***	0.064	15.73***
		로리지수	0.36	0.18	0.10	2.01*		
	가슴둘레	연령	0.01	0.00	0.26	5.40***	0.095	24.32***
		로리지수	0.34	0.18	0.09	1.90		
	허리둘레	연령	0.01	0.00	0.14	2.77**	0.065	16.06***
		로리지수	0.66	0.19	0.17	3.44**		
	배둘레	연령	0.01	0.00	0.19	3.93***	0.082	20.70***
		로리지수	0.55	0.18	0.15	3.10**		
	엉덩이둘레	연령	0.01	0.00	0.20	4.02***	0.067	16.65***
		로리지수	0.36	0.17	0.11	2.20*		
	소매통	연령	0.00	0.00	0.04	0.72	0.018	4.14*
		로리지수	0.42	0.19	0.11	2.27*		
바지	허리둘레	연령	0.00	0.00	0.02	0.40	0.008	1.82
		로리지수	0.28	0.18	0.08	1.55		
	배둘레	연령	0.00	0.00	0.11	2.22*	0.030	7.14**
		로리지수	0.31	0.16	0.10	1.92		
	엉덩이둘레	연령로리지수	0.00	0.00	0.04	0.80	0.004	0.82
			0.09	0.16	0.03	0.60		
	허벅지둘레	연령	0.00	0.00	0.04	0.72	0.012	2.87
		로리지수	0.29	0.16	0.09	1.81		
	바지부리통	연령	0.00	0.00	-0.02	-0.46	0.001	0.32
		로리지수	-0.07	0.18	-0.02	-0.41		
	밑위길이	연령	0.00	0.00	0.03	0.54	0.006	1.38
		로리지수	0.23	0.18	0.06	1.23		

* : p ≤ 0.05, ** : p ≤ 0.01, *** : p ≤ 0.001

서 연령과 체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아이템별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기성복 정장 중 재킷, 바지의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를 조사하고 연령별, 체형별 선호 경향의 차이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성인 남성의 기성복 정장 재킷과 바지의 각 부위별 선호하는 맞춤새는 모든 부위에서 ‘여유가 약간 있었으면 좋겠다’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몸에 꼭 맞았으면 좋겠다’가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았다. 성인 남성들은 여유가 많은 옷을 선호하지 않고, 몸에 꼭 맞거나, 약간의 여유가 있는 옷을 선호하였다.

2. 성인 남성의 연령에 따른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는 차이가 있었다.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았고, 50대는 가장 맞춤새 선호 경향이 낮아 여유분이 많은 것을 선호하였다.

3. 성인 남성의 체형에 따른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는 재킷에서만 나타났고, 비만형이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가장 낮아 가장 많은 여유분을 선호하였고, 수척형, 정상

형이 비만형에 비해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높아 적은 여유분을 선호하였다.

4. 연령대와 체형의 관련성을 배제하고 맞춤새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각 연령대의 체형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는 20대에서만 차이가 있었고, 3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비슷한 맞춤새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체형의 연령대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 차이에서는 모든 체형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있었으나 수척형, 비만형은 차이가 나타난 부위가 한 곳을 감안할 때 정상형에서만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고 볼 수 있다.

5. 연령과 체형이 성인 남성 정장의 맞춤새 정도에 따른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연령과 체형 모두 영향을 미치는 부위는 재킷의 어깨너비, 재킷의 허리둘레, 재킷의 배둘레, 재킷의 엉덩이둘레였고, 연령만의 영향을 받는 부위는 재킷의 가슴둘레, 바지의 배둘레, 체형만의 영향을 받는 부위는 재킷의 소매통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로리지수 모두 높을수록 재킷의 어깨너비, 재킷의 허리둘레, 재킷의 배둘레, 재킷의 엉덩이둘레의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낮았고, 재킷의 가슴둘레, 바지의 배둘레는 연령이 높을수록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낮았고, 재킷의 소매통은 로리지수가 높을수록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낮았다. 즉 재킷은 모든 부위에서 연령과 체형 혹은 연령, 체형 단독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바지는 배둘레 부위를 제외

한 모든 부위에서 연령과 체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아 이템과 부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과 체형이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 볼 때는 성인 남성은 체형보다는 연령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맞춤새 선호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 각 부위별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20대가 유행에 관심이 많고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여성의 경우 각 연령대의 체형별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는 모든 연령대에서 체형별 맞춤새 선호가 차이가 있었으나 각 체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선호 경향은 정상형에서 보이지 않아 연령보다는 체형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남성복 업체에서는 목표 시장의 소비자에게 적절한 여유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령, 체형, 선호하는 맞춤새 등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스타일이나 실루엣을 제공하는 의류제품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맞춤새의 선호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체형보다는 연령임을 감안할 때 타겟 연령대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가 떨어져 여유분이 많은 것을 선호하였으므로 전반적으로는 각 연령대에 맞춰 타겟 연령이 높아지면 여유가 많은 의복을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20대는 유행에 가장 민감한 연령대로 여유분에 있어서도 무조건 모든 부위에서 몸에 꼭 맞는 여유가 적은 스타일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유행에 맞게 부위별 여유분을 다르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30대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그들만의 특별한 특징이 없어 부위에 따라 20대 혹은 40대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30대에서 체형 변화가 많이 일어나 개인차가 많거나 여유분 선호 취향이 다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적절한 의류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로 응답자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대한 소재, 패턴, 디자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맞춤새 선호도 측정이 4단계의 주관적 감각에 의한 응답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맞춤새의 정도에 따른 선호의 차이, 의복의 맞춤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여선(2004). 남성복 재킷의 선호 여유량과 맞춤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유미(1996). 신사복 정장의 치수 규격과 맞춤새에 대한 소비자 태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영(1998). 노년 남성의 의복 착용 실태조사. *한국의류학회지*, 22(2), 193-202.
박우미(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63-180.
백희영, 남윤자, 박재경, 김주연(2000). 신체에 대한 인식과 계측 자료에 의한 여대생들의 체형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59-70.
석해정, 김인숙(2003). 성인 여성의 연령, 비만도에 따른 기성복 맞춤새 선호 경향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41(9), 17-29.
성민정, 김희운(2001). 비만 판정 지수에 의한 여대행의 체형 분류 및 체형 인지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3(3), 227-234.
손희순, 임순, 김효숙, 손희정, 김영숙, 장희경, 박호선(2000).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의복 맞춤새 선호도 및 의복행동 비교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4(1), 59-72.
안성원(2001). 성인 남성의 신체 만족도와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설영(2000). 여성복 브랜드의 치수 설정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희, 서미아(1997). 남성 기성복의 적합성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 *한국생활과학연구*, 15, 155-176.
주재은, 정찬진, 정명선(2001). 중년 여성의 신체지각과 이상적 연령에 따른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 *복식문화연구*, 9(5), 723-733.
Hogge V. E., Baer. M., & Kang-Park. J. (1987). Clothing for elderly and non-elderly men: A comparison of preference, perceived availability and fitting problem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4), 47-53.
남성패션에도 '복고' 바람(2005, 6. 21). 연합뉴스. <http://www.samsungdesign.net>.
소비자 의복 구입 결정 요인(2000, 12. 28). 삼성패션연구소. <http://www.samsungdesign.net>.
의류 소비 실태 조사(2004). 한국섬유산업연합회. <http://www.kotra.or.kr>.
정장 입는 직장 남성 늘다(2004, 12. 6). 매일경제. <http://www.samsungdesign.net>.

(2006년 1월 24일 접수, 2006년 5월 30일 채택)